

바깥 세상에 나설 그날을 기다리며

글: 강영호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나빠질 대로 나빠진 나의 몸! 단 15일 만에 20kg이나 되는 체중이 쏙 빠져버리고 말았다. 서둘러 보건소에 들러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결핵균으로 인해 망가진 폐로 인해 한센병에 버금가는 폐결핵 환자가 되어 있었다. 큰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라는 보건소 직원의 말대로 인근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보았으나 동일한 결과만 확인했다. 보건소와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나는 2006년 1월 16일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별천지인 서울시립병원 14병동에 입원했다. 병실의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건강에 너무 무지했던 탓이었다.

첫째는 과음이요, 둘째는 과다 흡연이며, 셋째는 음식물 섭취 부족에서 오는 영양 부족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0억 인구 중 10억 명이 결핵균보균자라는 점이었다. 인구 억제정책을 펴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다.

1개월쯤 입원 치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급속도로 곤란하여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담당의사와 13명의 간호사님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생명을 앞에 두고 가족만큼이나 안타깝게 바라보던 눈동자들. 최선을 다해준 그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나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운명은 모르는 것인가 보다. 친동생이 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며 나를 차에 태워 국립의료원으로 데려갔다. 의술의 천재라 불리는 내과 과장님 왈, “당신은 90% 이상 삶을 포기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었던 그 당시, 나를 힐책한 그 한 마디에 오히려 서광의 빛이 번쩍 보이는 것만 같았다. 폐가 다 망가진 나에게 단 10%의 희망을 가지고 치료해보자고 하셨고 나 또한 선생님을 믿어보기로 하였다. 처음엔 단순히 약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생각하고 수술만 하면 정상인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런 내 처지를 돌아보노라면 안타깝게도 저 바깥세상은 이미 내가 설 땅이 없는 곳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다. 폐가 거의 망가져 산행은 꿈속에서나 이루어졌고 들녘은 너무나 광활하여 한 발짝 디디는 것도 엄두 내기가 힘든 늪으

로 여겨졌다. 상체를 약간만 움직여도, 언덕을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생사의 심판장에서 죽음을 택하는 심판관의 도장을 받았더라면....

단 1%의 희망에 매달리다

내가 두 달 넘게 투병생활을 하던 곳,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12명의 환자들이 자신들의 수명을 검사 받는 곳, 다름 아닌 국립의료원 중환자실, 그 무리 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입과 코, 그리고 옆구리에 호스를 꽂아 꼼짝 못하는 상태로 그저 멍하니 눈만 깜빡일 뿐이었다. 중환자실의 간호사 다섯 명 중 두 명의 간호사는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환자 곁을 떠날 줄 모르고 씻기고 닦아주고 두드리며 환자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처음엔 인간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의사들의 차지인 줄로만 알았으나 말없이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지극정성에 힘입어 생사의 심판대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의 의지를 굳힌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투병생활이 아닌가? 힘이 들더라도 창문 넘어 세상과 함께 동참하려면 어금니 깨물고라도 술과 담배를 자제하고 병의 뿌리를 뽑을 때 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지구력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

다시 서북병원으로 돌아와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던 2006년 9월 어느 날, 어김없이 병실로 들어서는 담당의사가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을 띠며 “축하합니다. 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실로 8개월 만이었다. 지옥이 따로 없는 투병 생활에서 병균을 잠재웠다니 실로 꿈만 같았다.

흠짓 밖을 내다보니 천고마비의 계절의 푸른 가을 하늘이 더욱 투명하게 높아 보였고 새들과 풀벌레들의 하모니가 잘 조화된 대자연이 성큼 나에게로 한발 다가서는 듯하다. 이번 일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모두에게 건강한 상태일 때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길 권한다. 끝으로 병동 동료들의 희망찬 모습과 건강을 기원하며, 노심초사 돌봐주신 시립서북병원 의사 선생님과 여러 간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두 얼굴의 병

글 | 최호석

결핵을 알고 지낸 세월은 참 오래되었지만 주위에서 결핵은 병도 아니라기에 그냥 우습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감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핵을 앓으면서도 약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보니 병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숨을 쉬기가 무척 곤란한 호흡곤란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19 구급차에 실려 시립서북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서야 제 한 쪽 폐는 거의 망가졌고, 다른 쪽에는 기흉이 발생한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한 주먹이 넘는 약을 먹는 힘겨운 투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숨이 가쁜 것이 멈추게 되자, 치료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삶의 의욕이 더 강해졌다고나 할까요? 평소 약을 먹고 부작용이 올 때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막상 그 위급한 상황을 거치고 나니 삶에 대한 의욕도, 살아있는 것에 대한 행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결심했던 약 복용은 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토하고, 열이 오르고, 도대체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하루 이틀 약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잠깐씩 약을 먹지 않아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쉬운 병, 그러나 무서운 병

약을 멀리 하면서 일말의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현실이 또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병원을 찾아가 보니 결핵은 더 크게 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낫지 않았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결핵약에 대한 거부감을 핑계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너무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과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 힘껏 노력해보리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이 약간 좋아질 뿐 과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병원 가는 날이 돌아오면 의무감으로 약을 타왔지만 먹는 약보다 버리는 역이 더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들어가도 약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부작용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되돌아 나오는 발걸음은 너무도 무겁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7년에 이르게 되었고, 병원에서 예전에 함께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나보다 더 좋아진 모습들을 보며 부러움과 충격에 휩싸여 착잡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용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기에 위장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도 약을 먹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약을 먹어야 내일 이 있다는 희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의 입에서 완치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결핵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쉬운 병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섭고 소름끼치는 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병은 그냥 치료되는 것이 모든 병은 그냥 치료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질병은 나만의 고통이 아닌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길은 제가 약을 잘 먹고 하루 바빠 회복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약의 두려움을 벗고 열심히 의망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 ● ●

희망에세이는 서울시립서북병원 결핵환우수기모임집 “빛으로 샘물로 희망을 찾는 사람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결핵으로 고통 받고 있으신 분들께 삶에 대한 희망과 생명의 불꽃을 지필 작은 희망을 드리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을 쓴 환우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